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0. 9. 10.(목), 14:00~16: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 |
|---|------------------------------|--|

심 의 사 항

1.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가. 제안사항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고분군」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김해·함안 가야고분군」과 「고령 대가야 고분군」으로 각각 등록되었으며, 2015년 3월 우선등재 목록 선정 당시 두 잠정목록을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함. 2019년 1월 현재와 같은 7개 고분군을 포함하는 「가야고분군」으로 잠정목록을 수정함.
- 2017년 12월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신청 후 여러 회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조건부 가결>되었다가, 2020년 5월 조건부를 해소하고,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 되었음
- 2020년 7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심의시, <9월 초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 보류되었음
- 이에, '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에 대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다. 대상유산 및 진행경과

- 신청자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 대상유산 : 「가야고분군」(7개 지역 고분군)
 - 구성유산 :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유네스코에 「김해·함안 말이산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잠정목록 등록('13.12월)
 - 유네스코에 「가야고분군」 7개 유산을 포함하는 잠정목록 등록('19.1.28.)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경과

- 2015년도 본 위원회 제1차 회의(2015.3.10.) [우선등재 추진대상] / <조건부 가결>
 - 대상 : 3개 지역 고분군(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조건
- 2017년도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7.12.15.) [등재신청후보] / <보류>
 - 완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들을 추가할 것
 - OUV 보완, 신청기준 재 서술, 국내외 비교연구 심화, 완전성 재서술, 보존관리계획 구체화 등 등재신청서에 대한 전반적 보완 검토
- 2018년도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18.12.21.) [등재신청후보] / <보류>
 - 대상 : 7개 지역 고분군
 -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하여 위원회에서 추후 재심의함(3월 이내)
- 2019년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019.3.21.) [등재신청후보] / <조건부 가결>
 - 역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팀 보강 및 관련 전문가 참여, 비교연구 재작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에서의 구체적 근거 제시
- 2019년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19.7.30.) [등재신청후보] / <조건부 가결 유자>
- 2020년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20.5.22.) [등재신청후보] / <등재신청후보 산상>
- 2020년도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20.7.30.) [등재신청대상] / <보류>

라. 심의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를 심의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등재신청서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등재신청서(안)(별도) 참조

1) 유산 설명

* 등재신청서 133p, 「3.3.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가야고분군은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 간략한 종합

- ‘가야고분군’은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대성동고분군, 말이산고분군, 옥전고분군, 지산동고분군, 송학동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 신청유산은 지리적 분포, 입지, 묘제, 부장품을 통해 다수의 독립된 지역 정치체가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했던 가야연맹의 독특한 정치체계를 나타낸다. 가야연맹은 정치체 간의 결속과 주변국과의 교섭을 통해 고대 동아시아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 7개 고분군은 한반도 남부의 해안과 내륙의 각 정치체의 중심지에 위치한 가시성이 뛰어난 구릉지에 군집하여 오랜기간 조성된 최상위 지배층의 고분군으로 가야연맹을 구성했던 각 정치체의 특성과 세력권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 가야식 석곽묘와 토기를 비롯한 부장품은 동질성을 공유했던 가야연맹 전체의 지리적 범위를 알려주고, 이들의 세부적인 차이는 연맹을 구성했던 각 정치체의 범위와 자율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대등한 수준의 철제 무기류와 교역품은 연맹을 구성한 각 정치체가 자율성을 가진 수평적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 완전성

- 신청유산은 가야연맹의 각 권역을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서 연맹의 독특한 정치체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며, 입지, 묘제, 부장품 등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속성은 개별 고분군의 유산구역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신청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고고학적 유구와 근거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각 고분군은 경관적, 공간적 특징과 유산의 형성과정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규모이다.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어 개발 또는 방치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 고분군의 경우 인근의 도시화로 인한 영향을 받았으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고분군의 속성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 진정성

- 신청유산은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위치와 주변 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고분군의 발굴은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굴조사 결과 조성 당시의 고분의 구조와 재료, 축조 기술의 진정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유적의 복원과 정비는 공인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의해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에서 확인된 유구뿐 아니라 출토된 토기, 철기 등의 부장품 역시 고분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뒷받침한다.
- 신청유산은 처음 조성된 원래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이 일부 변화하였으나 유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입지적·지형적 특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보호관리 요건

- 신청유산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완충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 현상변경과 조사 정비의 허가는 문화재청이 담당하며, 유산의 현장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발굴조사와 정비는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의 유지를 위해 전문기관 및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출토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며, 박물관이나 연구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 각 고분군별 보호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서는 유산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설비가 현장에 갖추어져 있고,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지역주민들 또한 유산의 해설과 모니터링 등 보호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바. 전문가 검토 의견

- 회의일시 : 2020.9.4.(금) 10:00, ○○○회의실
- 검토자 :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 검토의견(요약)

- 이전에 비해 등재신청서가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제출 예정 기한을 고려할 때 충분히 세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짧은 보완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높은 완성도를 보임. 등재기준에 반드시 포함될 부분들은 간략한 종합과 등재기준에 반영되어 있음
- 동아시아 고대사회로 국한하여 비교분석의 대상을 선정한 것은 적절하며, 신청유산의 속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진정성과 완전성의 충족 여부로 비교대상을 선정한 것도 타당한 접근방식임
-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각 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관리체계 계획이 수립되었음. 다만 등재 이후 통합보존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일부 서술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등재신청서 최종본 제출('21.1월말)까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등재기준 서술 및 종합 요약)** 전체적으로 서술의 완성도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으나, 유산의 '탁월한' 측면과 더불어 '보편적' 측면을 좀 더 보완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함. 진정성과 완전성은 비교분석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충실하다고 생각됨.
- **(신청유산의 설명)** 전반적인 설명은 적절하며, 입지, 묘제, 부장품으로 신청유산의 속성을 구분하고 이에 맞춰 유산의 특성을 설명한 방식은 적절하다고 여겨짐. 그러나 정치체계·정치체제 등 용어 사용과 가야고분군의 지리적 환경에 대한 설명 등, 일부 단어의 정확한 사용과 문장의 보완이 필요함
- **(비교연구)**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 연구는 비교적 서술이 정리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나열식이므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하여야 함. 중국과 일본의 고분 관련 연구 성과를 충실히 활용하여 비교연구를 완성하면서 참고문헌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야고분군 7개의 선정논리에서 사용한 표는 기호의 영향으로 인해 작위적으로 보임.
- **(보호관리계획 등)**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설정 논리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방재 부분의 서술이 박물관 위주이나 유산 자체에 집중한 방재대책이 필요함. 수용력 산출 내용은 모호하며, 연속유산으로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통합보존관리에 관련한 부분 보완이 요구됨

사. 소관부서 검토 의견

○ 부서 검토의견

- 편집위원회(3인), 자문위원단(3인)을 구성하고, 추진단 내 학예직 1인이 추가 파

견되어 추진단의 전문성이 제고됨은 물론 등재신청서의 완성도도 함께 높아졌음.

- 등재신청서 형식면에 있어, 전반적으로 유네스코 지침에 맞게 대폭 개선되었으며, 분량도 적절함. 각 장(요약, 설명, 등재타당성, 보호관리계획)이 유기적인 서술로 개선되었음.
- 등재신청서에서 가장 핵심부분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0장, 3장)”은 가야가 보여주는 연맹체계가 고대국가의 이전 단계라는 예전 서술에서, 고대국가와 병존하였고,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한 유형으로서 중요하다는 논리로 정리되었으며, 이러한 논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적이 모두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7개 고분군에 대해, 현 발굴조사를 근거로 가야 정치체별 권역을 나누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고분군이라는 점, 유적과 부장품을 통해 가야 연맹 전체의 특성(동질성과 자율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과 비교연구에서 적절히 서술하였음
- 다만, 전문가 검토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을 좀 더 세밀하게 수정하고, 동아시아 지역 고분군과 비교에서의 보완, 전반적인 용어 검토를 통해 서술의 세련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상기 지적된 부분은 유네스코 제출기한(‘21.1월말, 예비 제출 ‘20.9월말)을 감안하더라도 세부적인 보완으로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됨.
- 해당 유산을 우리나라의 차기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 말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할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아.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가야고분군을 차기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함.
- 출석 7명 / 원안 가결 7명